정의선 "수소 경제 '퍼스트 무버'… 年 50만대 생산 구축"

〈현대車 수석부회장〉 〈2030년〉

현대車 충주 제2공장 신축 기공식

124곳 부품협력사와 R&D 확대

협력사와 1300명 신규고용창출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차 엔진' 양산 공장을 짓고 글로벌 수소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또 2030년 국내에서 연간 50만대 규모의 수소전기차(FCEV) 생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중장기 수소차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11일 충북 충주에 있는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생산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길형 충주시장, 이장섭 충북 정무부지사 등 정관계 인사들과 모토닉·유니크 등 수소전기차 부품 협력사 관계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임영득 현대모비스 사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로드맵 발표를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직접 맡았다는 점에서 정 부회장의 주도적인 경영 행보와 친환경차 리더십을 한층 확대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여기에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면서 국내에서 수소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조만간 열리고 '수소경제사회'가 한발 앞당겨 도래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현대차그룹은 제2공장 신축 공사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해 현재 연간 3000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생산 능력을 2022년까지 4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장치인 수소 연료전지시스템(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충주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기공식에서 수소 및 수소전기차 중장기 로드맵인 'FCEV 비전 2030'을 공개했다. 'FCEV 비전 2030'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협력사와 함께 2030년 국내서 연간 기준으로 승용과 상용을 포함해 수소전기차 50만대 생산체제 구축에 나선다.

연간 50만대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약 124곳의 주요 부품 협력사와 2030년까지 연구·개발(R&D)과 설비 확대에 모두 7조6000억원을 신규 투입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과 협력사의 투자가 이뤄지면 2030년까지 신규 고용은 모두 5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11일 현대모비스 충주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제2공장 신축 기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시삽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길형 충주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임영득 현대모비스 사장 순. /현대자동차그룹

우선 현대차그룹은 협력사와 함께 현재 연간 3000대 규모인 수소전기차 생산 능력을 2020년에는 약 4배 수준인 1만1000대로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2년 동안 3000억원의 투자를 단행해 모두 1300명을 신규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계획대로 2030년 국내 50만대 규모의 수소전기차 생산체제가 현실화한다면 이에 따른 연간 경제효과는 약 25조원, 간접 고용을 모두 포함한 취업유발 효과는 22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현대차그룹은 밝혔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연료전지 시스템을 외부에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 시장 진출을 원하는 경쟁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 선박과 철도, 지게차 등에서 연료전지시스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 분야에서의 수요 증가도 예상됐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와는 별도로 2030년 기준 연간 약 20만기의 연료전지시스템을 외부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넥쏘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시스템을 기반으로 제품 성능을 보완하고 라인업을 확대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연료전지시스템 판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초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소속 연료전지사업부 안에 실급 전담조직도 만들었다. 다만 초기 시장인 만큼 철저한 시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수소전기차의 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만큼, 협력사와 동반투자를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신 성장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머지 않아 다가올 수소경제라는 신산업 분야의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인 수소사회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연료전지시스템 판매 사업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외에서 연료전지에 대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운송 수단 및 발전 분야 등에서 연료전지시스템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방식 수소 생산이 보편화될 경우, 수소 가격 하락과 함께 연료전지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아그위그챌린지 영상 스틸컷.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환경보호 캠페인

텀블러 사용하고 '맹그로브 묘목' 심자!

SK이노베이션은 참여자 수만큼 맹그로브 나무를 식수하는 전국민 대상 환경 캠페인 '아.그.위.그. 챌린지(I Green We Green Challenge)'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아.그.위.그. 챌린지'는 '나'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가 속한 환경을 푸른 빛으로 만들자는 의미의 일회용품 절약 환경캠페인이다. 지난 10월 SK그룹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환경 캠페인 시행에 맞춰 SK이노베이션이 사내 구성원 캠페인으로 시작해 SK수펙스추구협의회, SK㈜를 비롯해 SK그룹 일부 관계사까지 확산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존 '아.그.위.그 챌린지'에 '재미'와 '참여'의 요소를 더해 전국민이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 절감에 동참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참여방법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머그컵·텀블러와 나무를 함께 촬영하고 아그위그챌린지 해시태그(#아그위그챌린지)와 함께 게재한 뒤 다음 참여 주자 3명을 선정(태그)해 챌린지를 이어가는 형식이다.

간단한 인증샷 촬영에도 머그컵·텀블러 사용을 통해 종이컵 사용을 줄여 자칫 사라질 수 있는 한 그루 나무를 살리는 동시에 베트남에 지구를 살리는 맹그로브 나무 한 그루를 기증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캠페인 참여자 1명당 맹그로브 나무 1그루를 매칭, 베트남 맹그로브 숲에 식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달 25일까지 머그컵·텀블러를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메리아그위그 해시태그(#메리아그위그)와 더불어 게재한 아.그.위.그. 챌린지 참여자 중 50명에게 추첨을 통해 파리바게뜨 모바일 상품권도 선물한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올해 5월부터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베트남 짜빈성 일대 숲에 맹글로브 나무를 심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훼손된 맹글로브 숲에 광화문 광장 면적의 5배가 넘는 약 11만㎡ 규모 부지에 2만5000여주의 맹그로브 묘목을 3차례에 걸쳐 식수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크리스마스 스티커로 AR 캐릭터 꾸며볼까?"

LG전자 V40 씽큐 전용 스티커팩

산타클로스·루돌프 등 18종 구성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LG V40 씽큐(ThinQ)'가 증강현실(AR) 스티커로 카메라의 재미를 더한다.

LG전자는 11일 LG V40 씽큐 전용 '크리스마스 AR 스티커팩'을 공개했다. AR 스티커팩은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산타클로스, 루돌프 등 총 18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LG 스마트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AR 스티커는 다양한 AR 그래픽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합성해 사진을 재미있게 꾸미는 기능이다.

LG V40 씽큐는 국내 최초로 5개의 카메라를 장착하고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또렷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사진을 찍고 싶은 고객 요구를 반영한 제품이다. 여기에 '크리스마스 AR 스티커팩'이 추가되면서 사진 찍는 재미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모델이 AR스티커팩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 CNS-메가존, 클라우드 시장 선도

LG CNS가 클라우드 사업 확대를 위해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분야 1위 업체인 메가존클라우드와 손잡았다.

LG CNS와 메가존클라우드는 11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클라우드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차별화된 기술, 지식, 자원, 사업역량 등을 서로 공유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클라우드 분야에서 양사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판매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업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양사는 LG CNS의 대형 클라우드 통합사업 역량과 메가존클라우드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역량 등 상호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시장을 공략해 대형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성공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LG CNS 김영섭 사장(왼쪽)과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LG CNS

LG CNS는 지난 30여년간 쌓아온 국내 대형 고객들의 IT시스템 구축역량과 클라우드 컨설팅부터 설계, 구축 및 서비스, 운영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LS산전

수중사진 공모전 개최

LS산전은 서울시수중·핀수영협회와 공동으로 '2018 제 6회 LS산전배 전국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공모전은 수중세계의 신비로움을 일반인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바다를 대대손손 맑고 푸르게 보존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수중·핀수영협회장을 맡고 있는 LS산전 구자균 회장이 직접 제안, 기획하면서 시작됐다.

대상에는 김환희 작가의 '빛으로 가는 길'이 선정됐다. 김 작가가 지난 6월 세계 3대 다이빙 포인트로 꼽히는 솔로몬 제도에서 촬영한 작품으로 오세아니아 인근 태평양 심해의 해저 동굴에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한줄기 빛의 환상적인 모습에 매료된 한 다이버(Diver)의 모습을 담았다. /김유진 기자